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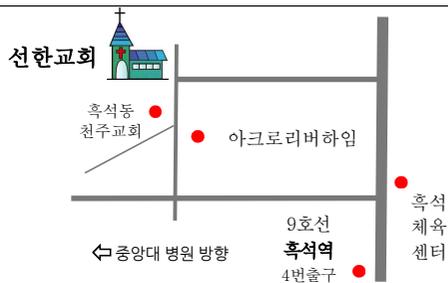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b>담임목사 임 춘 배</b>	<b>국 내 선교사</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박 희 태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b>장 로</b>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의 방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0장 (통일찬송가 41장)
교 독 문	교독문 26 (시편 50편)
찬 양 과 경 배	350장 (통일찬송가 393장)
기 도	조운익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0장 1 ~ 13절
설 교	<b>선물로 생각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b>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 자의 30가지 습관 6 (잠24:17-22)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2주동안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 이번주 범위 (사26장~렘7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코로나 19 기도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 떡 제 공** 이성범, 조연금 집사 가정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찬송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도' 545장(통 344)

본문 : 마태복음 4장 18~22절

말씀 : 요즘 사람들에게 한창 인기를 끄는 취미 생활로 낚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강이나 바다, 연못이든 물만 있는 곳이라면 강태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낚시를 잘하려면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없는 곳에 낚싯대를 드리운다면 결과는 볼 보듯 뻔하지요. 두 번째는 미끼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메기나 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싱싱한 지렁이를 미끼로 사용해야 합니다. 월척급 붕어를 잡기 위해서는 옥수수 미끼가 제격입니다. 힘찬 손맛을 선사하는 배스 낚시에는 루어라는 가짜 미끼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낚싯대를 채는 챔질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알록달록 오색 찌가 흔들린다고 챔질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찌가 슬며시 올라오고 있다고요? 좋은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한 뺨이나 올라와 기동처럼 멈춰 섰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당기십시오. 분명 고기가 끌려올 겁니다. 낚시꾼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몇 시간을 망부석처럼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명심하세요. 낚시는 선택의 기술입니다. 잡고 싶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 낚싯대를 드리워야 합니다. 낚시터도 잘 선택해야 하죠. 또 알맞은 미끼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진한 감동의 이야기를, 흥과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에게는 찬양을, 외로움으로 인해 갈급한 영혼에는 진심을 담은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낚시 기술의 하이라이트는 타이밍입니다. 이는 사람을 낚는 낚시 또한 영락없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조건 기다리셔야 합니다. 월척은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찌가 찢끔찢끔하며 초조하게 만들거나 반응이 너무 더디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더 기다리면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자칫하면 깜짝 놀라 도망치고 맙니다. 충분히 찌가 솟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그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고 몇 번의 헛챔질을 했으며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 결국 영적인 한 가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낚시꾼이자 천국 낚시꾼, 구원 낚시꾼이 되는 유쾌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제 목

선물로 생각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10:1-13)

서 론

바울은 성도들이 넘어질수 있으니 언제나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1. 넘어지게 하는 시험들

- (1) 이스라엘 백성들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으니 그들을 본으로 삼아야 함(5,6절)
- (2) 그들의 죄악들: ①우상숭배(7절) ②음행(8절) ③주를 시험함(9절) ④원망함(10절)
- (3) ‘그런즉 선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12절)

본 론

### 2. 교훈

- (1)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점은 무엇인가?
- (2) 그들이 행한 죄악 중 나에게도 있는 것이 있는가?
- (3) 지금 내가 넘어지지 않기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 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윤익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방법대로'	날짜 : 7월 12일
찬양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본문	출애굽기 38:1-20		
말씀요약	브살렐이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연결한 뒤 놋으로 삼니다. 제단의 부속 기구를 모두 놋으로 만들고, 놋 그물을 만듭니다. 물두멍도 받침과 함께 놋으로 만듭니다. 또 뜰을 만들기 위해 놋으로 기둥과 기둥 받침을, 은으로 갈고리와 가름대 등을 만듭니다.		
목상질문 1	번제단과 물두멍 38:1-8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번제단과 물두멍의 기능은 각각 무엇인가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뜰 38:9-20 거룩성이 낮은 뜰 제작도 철저히 하나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무시하지 말고 행할 하나님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출애굽기 38장 1,20절 모세가 전해 준 성막의 설계대로 건축자들은 모든 공정을 실현해 냅니다. 공정마다 만들어야 할 것들의 크기와 재질 그리고 수량의 다양함과 복잡함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건축자들의 헌신으로 번제단과 물두멍에 이어 울타리에 쓰일 기둥과 부속들 그리고 세마포 포장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배'로 받으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물은 건축자들의 거룩한 열정과 세밀한 순종이 아니었을까요.		
적용			
오늘의 기도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저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 늘 성령 안에 거하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생각나는 죄를 곧바로 회개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방법대로만 행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거룩한 옷을 입으라”	
찬양과 기도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새 87, E b→D) 신실하게 진실하게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의 하형록 회장은 잠언 31장에서 받은 은혜를 적용해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잠 31:22)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사원들의 복장을 정장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시대에 세마포는 고급스러운 천으로,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주로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염료가 귀했던 만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격식을 차릴 때 입었습니다. 대부분 건축 설계 회사에서는 현장에 알맞은 캐주얼 차림을 하지만 하 회장은 잠언 말씀을 목상하면서 넥타이를 맨 단정한 정장을 회사 복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복장이 구식이나 신식이나 하는 기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도 정장 차림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많아졌습니다. 옷차림이 비슷한 이들을 고객으로 두게 되면서 회사 경영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복장은 기업 성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정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경건한 삶의 귀감이 되는 청교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주일에는 ‘Sunday Best’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만남을 위해 옷차림부터 구별하려는 청교도들의 노력과 하 회장의 결정에는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 하형록,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두란노) 나는 주일에 어떤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나요?	
말씀 나누기	출애굽기 39:1~21		
목상포인트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위해 거룩한 의복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통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에봇 어깨받이에 달린 호마노, 흉패에 달린 보석에 새겨진 열두 지파의 이름은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제사장이 성소에서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어떤 실들이 사용되었나요? (1~5절)		
적용하기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제가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의 길로 유혹하는 일들을 단호히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 모세를 통한 주님의 축복	날짜 : 7월 16일
---------	-------------------------------	-------------

찬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본문	출애굽기 39:32-43	
말씀요약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그들은 성막 곧 그들이 만든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옷 등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목상질문 1	성막 제작 완공 39:32-41 제작된 모든 물품을 또다시 상세히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한 일들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백성을 축복하는 모세 39:42-43 성막 완성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순종이 가져올 복을 소망하기에 오늘 순종을 결심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39장 42-43절 이스라엘은 성막 공사를 마친 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하시며 복을 명하시던 안식의 날 이야기를 다시 듣는 듯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막의 준공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식과 복의 비결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뜻은 순종과 협력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잊지 않는 저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탓하며 적당한 수준을 찾았던 연약한 습성을 버리고, 더 순종하고 더 협력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기쁨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매일 Q.T.	귀한 재료로 건축된 하나님 임재 처소	날짜 : 7월 13일
---------	-------------------------	-------------

찬양	찬송가 450장 내 평생소원 이것뿐	
본문	출애굽기 38:21-31	
말씀요약	성막을 짓기 위해 레위 사람이 사용한 재료의 목록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정산합니다. 성막 건축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브살렐이고, 오홀리압은 조각하며 수놓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건축에 든 비용은 금 29달란트 730세겔, 은 100달란트 1,775세겔, 놋 70달란트 2,400세겔입니다.	
목상질문 1	성막 건설의 대표자들 38:21-23 성막 건설 과정에서 이다말, 브살렐, 오홀리압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공동체가 함께 완성할 일 중 내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성막 재료의 목록 38:24-31 성막 건축에 사용된 은이 생명의 속전 금액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이 오늘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38장 21-23절 성막 공사, 정확히 말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만드는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현장 소장 브살렐, 예술 장인 오홀리압, 자재와 재정 담당관 이다말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지파도 달랐고 은사도 서로 달랐던 이들이지만, 같은 믿음, 같은 영성, 같은 충성으로 사명을 훌륭히 완수해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한 영으로 감동된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였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는지 저와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소서. 제 생각과 판단을 남김없이 버리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매일 Q.T.		새 창조를 상징하는 제사장 의복	날짜 : 7월 14일
찬양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재		
본문	출애굽기 39:1-21		
말씀요약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은 정교한 옷과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을 만듭니다. 에봇과 어깨받이를 연결하고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두 개를 어깨받이에 달아 기념 보석을 삽니다. 흉패를 짜고 열두 보석을 달아 에봇에 연결하고 청색 끈으로 금고리에 꿰니다.		
목상질문 1	제사장 의복 제작 39:1-7 제사장 의복이 성막의 축소관으로 새 창조를 상징한다는 점이 주는 영적 통찰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새 창조의 삶을 사나요?		
목상질문 2	판결 흉패 제작 39:8-21 흉패에 열두 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 열두 개를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과 말씀 순종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39장 14절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별이 곧 차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게 한 것은, 열두 지파 전체를 차별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 뜻을 드러낸 구별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적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그 화려함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깨닫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부르셨으니 죄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예배자의 정체성, '여호와께 성결'	날짜 : 7월 15일
찬양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본문	출애굽기 39:22-31		
말씀요약	에봇 받침 긴 옷은 청색으로 짜며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합니다. 색실과 베실로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사이사이에 순금 방울을 달니다. 또 속옷과 세마포 두건과 관과 속바지를 짓고 수를 놓아 띠를 만듭니다.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니다.		
목상질문 1	에봇 받침 긴 옷 39:22-26 석류 모양 장식과 금방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28:33-35)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게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목상질문 2	기타 의복들 39:27-31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39장 30절 제사장의 매력과 권위는 '거룩한 예복'이나 '장식'이 아닌, '구별함의 방향'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구별, 곧 거룩함이 '공동체로부터의 구별'에 치우칠 때는 구별이 자주 차별과 위선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구별'이 강조될 때만 그 구별은 제사장다움과 아름다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 패를 만들어 머리에 쓰는 관에 매달게 하신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앞에서 제 삶이 어떤 향기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흠 없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소서. 제 깊은 마음부터 모든 생각, 관계, 행동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뚜렷이 새겨지게 하소서.		